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위기에서 찾은 기회요인 국제교류협력 동력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교류·지방외교 재정립 방안 발표

오늘 호주·미국·동남아·CIS 등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 운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8일과 29일(1박2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이스타워더 호텔에서 2022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를 열고 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연찬회는 지자체 국제교류업무 담당관을 위한 업무 연찬 및 정보교류의 장이다.

이번에는 시도·시군구 교류담당자(180여명), 해외문화홍보원 등 국제교류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회 6개 해외사무소(일본, 중국,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를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첫째날 송하진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절대적 위기였지만, 대면교류의 단절은 좀 더 창의적이고, 진일보한 교류 협력을 모색하는 기회의 씨앗이기도 했다"며 "위기에서 찾은 기회요인들을 국제교류협력의 동력으로 키워내야 할 차례"라고 강조하며, 둘째날 연찬회의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교류'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찬회 첫째날에는 송하진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특강 ▲지방외교 특강 ▲협의회 국제화 지원 주요사업 소개,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일본·중국, 프랑스·영국), ▲교류의 밤(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했다.

둘째날은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호주·미국), ▲동남아 국제교류 특강,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러시아·CIS), ▲네트워킹 오찬, ▲지자체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표(남양주시, 김해시), ▲국제화 유관기관 협력프로그램 소개(해외문화홍보원, 대전·UCLG세계총회,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로 구성돼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특강은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 우리 어떻게 일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했고, 지방외교 특강은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외교 재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은 협의회 6개 해외사무소가 발표를 하는데 1일차에는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사무소가 각각 코로나 동향 및 지자체 교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일차에는 호주, 미국사무소가 발표를 하고, 해외사무소 부재지역에 대해서는 협의회 국제교류 멘토단이 참여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엄은희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해양교류의 관점에서 본 동남아'에 대해 발표하고, 러시아·CIS 지역은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교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지는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교수가 '중앙아시아와 지자체 교류협력'을, 정세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가 '코카서스 3국 국제교류 제언'을 발표한다.

특히 둘째날 연찬회에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역문화 해외진출 협력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종률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이 참석했고, 협의회 지방외교 외국인 홍보단과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가 참관했으며,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영국대사관에서도 네트워킹을 위해 참가하는 등 지자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유호상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과 29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이스타워더 호텔에서 '2022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28일 지방분권대학생 서포터즈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 “고심 끝 중앙당 재심 신청”

민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브로커 개입 해당행위 통한 여론 왜곡 청산... 판단 기다릴 것”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조지훈 예비후보가 고심 끝에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28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브로커 개입과 해당행위'를 선거운동의 도구로 삼아 여론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심 신청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전주시장 경선 과정은 유례를 찾기 힘든 혼돈의 연속이었다"며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른 선거브로커 개입설이 여론을 왜곡시켜 전주시장 경선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무소속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의 표를 얻고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는 말은 누가 봐도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행위

발언은 당원을 비롯해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데다 당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만큼 명백히 당헌당규에 명시된 징계 사유라고 덧붙였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심과 당심을 왜곡한 선거브로커 개입설과 해당행위도 서슴치 않는 선거운동을 통해 경선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행위를 당내 경선 선거운동의 도구로 삼아 경선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당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재심 신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관련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조지훈 예비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예비후보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의 정책자료집 공유를 정중히 제안한다"면서도 "재심청구로 인해 당원과 전주시민들이 받을 상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 후보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열흘간의 영화 나들이

### 전주국제영화제 내달 7일까지

전주돔 상영관 등서 56개국, 217편 상영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8일 개막작 '애프터 양' 상영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8일 고사동의 영화의 거리에 설치된 전주돔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영화인의 축제, 전주국제영화제를 진행한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전주디지털독립영화원에서는 개막작 애프터 양이 상영됐다.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전주돔에서는 개막식의 열기에 불을 지피는 유명 영화인의 레드카펫 입장이 이어졌다.

공민정과 공연연, 권혜효, 김갑수, 김보라, 나문희, 박하선, 송새벽, 오광록, 유다인, 윤시내, 이주영, 이창 등, 임권택 등 영화인 150여명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영화인 장영성·유인나의 사회로 시작했다.

영화제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주돔 상영관과 5개 극장 19개 영화관에서 56개국 217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김윤상 기자

## 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도내 277만7823필지 올해 도내 변동률 8.48%

전북도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7만7823필지이며(도 전체 필지의 72%) 시장·군수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48%(전국 하위 7위)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3%보다 낮고, 지난해 상승률 9.17%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승세가 크다고 밝혔다.

시·군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1.14%)으로 지가 현실화를 반영, 태

양평 발전시설 증가·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고,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6.33%)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북 표준지 변동률(7.99%)이 반영돼 상승된 것으로 호천지구, 예곡사지, 삼봉 신도시 등 지역별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LG 유플러스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777만원/㎡,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64-5번지(구거)로 282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일사관리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onbuk.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관할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호상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